

#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지각\*

## Adolescents' Social Network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순천 남산중학교  
교사 최은희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조교수 공인숙

Sunchon Namsan Middle School

Teacher : Choe, Eun Hee

Dept. of Consumer · Family & Child Studies, Sunchon Nat'l Univ.

Assistant Prof. : Kong, Insook

### ● 목 차 ●

I. 서론	I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및 해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social network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In this study 207 seventh and ninth grade adolescents completed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NRI) and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iles, t-test, Cronbach's  $\alpha$ , Pearson's correlat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with various social agents made different contributions to the prediction of adolescents' self-perceived competence.
- 2) In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boys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than girls for the social support from teacher.

In Competence, boys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than girls for the social acceptance and athletic competence.

\* 본 논문은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3) In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the seventh grader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inth grader for the social support from mother, father and teacher. In scholastic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ppearance and global self-worth, the seventh grader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inth grader.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역량지각(self-perceived competence)

## I. 서론

청소년은 신체적 성숙에 따른 정서적, 인지적 변화와 더불어 진로 설정 등의 사회적 기대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변화는 청소년에게 학동기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부적응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데 James(1890, 1892)가 자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자아 과정(self-process)은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즉 자아구조가 개인의 목표 형성에 중요하다거나, 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자기규제를 돕는다는 연구(Dweck, 1991; Higgins, 1991; Ruble & Frey, 1991)는 비교적 많다. 실제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 개인의 능력에 정서적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반면에, 부정적 자기지각이 태만 행동이나 비행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연구자들이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자아 관련 연구에, 자아개념, 자아상, 자존감, 자아효율성, 역량지각, 자아가치 등의 다양한 구성 개념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 Harter(1982)는 기존의 자존감이나 자아개념과 같은 구성 개념이 이질적 항목에 대한 반응을 요약한 총점수로 자아 평가 지수를 삼음으로 해서, 자아에 대한 연구의 평가나 해석에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면서 다차원적 자아평가 개념인 역량지각(Self-Perceived Competence)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즉, 청소년의 역량지각은 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 능력, 신체, 행동·품행의 5가지 영역과 각 영역 별 역량지각을 초월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Harter의 역량지각

개념은 비교문화 연구(Gavin & Herry, 1996; Maeda, 1997; Marsh, 1990; Rhee, 1993)를 통해 타당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역량지각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고 여겨진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는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은 부모를 온정적이면서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인지적, 사회적 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이 가장 높았다(공인숙, 1989). 또한 부모의 온정·수용과 형제의 온정·친밀성은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박영애, 1995). 이 때 가족원이면서 성인인 부모와는 다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다. Feiring과 Taska(1996)는 형제자매가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주목하면서, 형제자매관계는 출생순위에 따른 위계구조나 형제간의 비교, 역동일시(deidentification)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족원 중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부모와는 별개로 청소년의 역량지각과 관련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Berndt, 1979)이므로,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또래 집단의 정서적 지지, 교환적 협동, 공동 활동이 아동의 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도, 신체적 역량지각을 높였으며(이주리, 1994), 또래집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 능력,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한종혜, 1996).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경우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역량지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아동

의 경우, 교사를 친밀하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학업 능력, 행동·품행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높게 지각하였다(한중혜, 1996).

그런데 기존의 역량지각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지각 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중혜, 1996)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초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술과 대인간 특질이 특히 중요해지며, 사회적 맥락에 따른 자아의 양상이 보다 다양해진다(Harter, 1999)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맺고 있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과 청소년의 역량지각의 영역별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인과의 관계나 또래 관계에서 아동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지각의 영역별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역량지각 발달과 관련된 연구(공인숙, 1989; 한중혜, 1996; Harter, 1982; 1999)에서, 역량지각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역량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되므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역량지각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의 역량지각의 감소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와, 성별에 따라 역량을 차이있게 지각하는 지에 관한 선행연구(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이주리, 1994)는 서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역량지각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청소년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독립성을 보이게 된다.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Berndt, 1979)에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동조성은 약간 감소하는 반면, 또래에 대한 동조성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

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지각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에서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 결과는 서로 불일치한다. 우선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공인숙, 1989; 한중혜, 1996)가 있다. 반면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에서 성차가 없었다는 연구(도현심, 2000)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부모, 형제자매, 또래, 교사)과 역량지각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및 역량지각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및 역량지각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역량지각 발달에 중요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부모 교육이나 학생 지도의 지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순천 시내에 거주하는 중학생 청소년 207명으로, 남학생 100명(48.3%), 여학생 107명(51.7%)이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12세가 62명(30.0%), 14세가 54명(26.1%)으로 주로 12-15세 사이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81.1%)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 역시 40대가 121명(58.4%)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 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형제 자매의 수는 두 명인 경우가 134명(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 명이 24.2%, 넷 이상이 6.8%, 외동인 경우가 8명(3.9%)으로 가장 적었다.

### 2. 측정 도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는 도구를 구성

하기 위하여, Furman(1985)이 제작한 관계망조사(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 NRI)에서, 지지, 온정, 조력 등을 나타내는 문항과 관련 연구(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한중해, 1996)를 참조하여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원래 Furman의 관계망조사 도구는 우의, 조력, 만족, 친밀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과 함께 대립, 처벌 등의 부정적 요인을 함께 측정하는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요인과 역량지각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계망조사 도구에서 온정, 조력, 우의와 관련된 일부 문항만을 취하여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청소년이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교사, 또래 집단의 5가지 관계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81$ 에서  $.86$  사이로 양호한 편이었다.

청소년의 역량지각 검사는 Harter의 역량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FC)를 타당화한 박영애(1995)의 척도를 응답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 능력, 신체, 행동·품행과 별도의 위계적 개념인 전반적 자아가치감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은 다섯 문항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alpha = .61$ 에서  $.78$  사이였다.

### 3. 연구 절차

측정 도구의 적합성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예비 조사를 2000년 7월 14일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순천 시내 중학교 1학년 학생 37명이었다. 조사 결과에 의해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7월 20일부터 21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은 우선 유사한 환경으로 여겨지는 순천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2개 중학교를 선정하고, 다음으로 각 학교에서 1학년과 3학년의 3 학급씩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2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부실 기재된 24부를 제외하고, 총 207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 4. 자료의 분석

SPSSWin 10.0 프로그램에서 빈도 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Cronbach's  $\alpha$ , t-test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및 역량지각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점수는 19점에서 9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중간값은 57점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청소년은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68.49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62.03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60.18점으로 비교적 가깝게 지각한 편이었다. 그에 비해 아버지와의 관계는 57.79점으로 중간값 정도였으며, 교사와의 관계 점수는 52.06점으로 중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청소년은 다른 사회적 관계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를 특히 밀접하지 않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은 역량지각의 하위 영역 중에서, 전반적 자아가치감(2.85점)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표 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및 역량지각 정도

척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관계망		
어머니	62.03	10.39
아버지	57.79	11.63
형제자매	60.18	10.57
교사	52.06	10.27
또래집단	68.49	10.67
역량지각		
학업능력	2.37	.58
사회적수용도	2.75	.56
운동능력	2.47	.90
신체	2.25	.88
행동·품행	2.61	.54
전반적 자아가치감	2.85	.59

있었으며 사회적 수용도, 행동·품행도 중간값(25점)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그에 비해 운동능력, 학업능력, 신체적 역량지각은 중간값보다 낮게 지각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비교적 긍정적인 자아가치감을 가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며, 자신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학업능력, 운동능력, 외모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하는 편임을 의미한다.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지각의 관계

1)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관계와 역량지각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관계와 역량지각 요인 간의 관계는 사회적 수용도, 학업 능력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그에 비해 청소년의 운동 능력, 신체, 행동·품행 역량지각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상관관이 없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온정이 높을 경우에,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높다는 연구(공인숙, 1989; 박영애, 1995; 한중혜, 1996)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가 비지지적이며 단호한 통제를 하는 경우에 청소년은 신경증적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래 관계에서 민족을 얻기 어려운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는 낮은 사회적 수용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이나 지지는 청소년의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자녀의 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지지적인 어머니는 청소년의

자기보상 체계를 내면화시키므로 청소년의 자아가치감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와의 관계와 관련이 없는 역량지각 요인은 신체, 행동·품행 및 운동 능력에 관한 역량이었다. 이는 부모의 온정 및 통제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역량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공인숙, 1989)와는 일치하나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친밀, 우의가 아동의 신체, 행동, 품행과 정적 상관관이 있다는 연구(한중혜, 1996)와는 불일치한다. 이는 역량지각의 인지적 부분이나 정서적 부분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신체적 부분은 어머니의 지지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청소년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역량 지각

아버지와의 관계는 <표 2>에 보듯이, 사회적 수용도, 자녀의 학업 능력, 전반적 자아가치감 및 신체 역량지각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온정적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 주며, 잘도와 줄수록 자녀가 자신에 대해 주변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며, 학업 능력이 있으며,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지지 및 친밀(한중혜, 1996)과 가족경험의 다양성(이주리, 1994), 아버지의 자녀 놀이에의 참여(MacDonald, 1987)가 아동의 역량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의 역량지각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의 관계 못지 않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지각의 관계

역량지각		역량지각					
		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 능력	신체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 가치감
사회적 관계망	어머니	.19**	.25***	.10	.09	.08	.15*
	아버지	.26***	.26***	.14	.15*	.12	.21**
	형제자매	.22**	.32***	.16*	.15*	.17*	.30***
	교사	.36***	.19*	.24***	.17*	.11	.23**
	또래 집단	.10	.28***	.11	.16*	.24***	.23**

\* p < .05 \*\* p < .01 \*\*\* p < .001

### 3) 청소년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역량지각

〈표 2〉에서와 같이 형제자매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 역량지각의 모든 하위 영역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형제와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박영애, 1995)거나, 형제자매의 지지가 아동의 학업능력, 행동·품행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정적상관이 있다(한중해, 1996)는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역량지각 하위 요인과 부분적 관련을 보이는 반면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역량지각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상관 정도도 더 높았다. 이는 청소년 연구에서 유사한 연령과 지위를 가진 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이,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 4)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와 역량지각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능력 지각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교사의 사회적 관계가 아동의 학업능력, 전반적 자아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한중해, 1996)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밖에도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운동 능력, 전반적 자아가치감, 사회적 수용도 및 신체적 역량 지각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행동·품행에 관한 지각은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없었다.

이는 청소년의 행동·품행의 동조 행동은 성인보다는 또래와 관련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Berndt,

1979)이 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행동·품행 역량지각의 한 영역을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관련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고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에서 표집되었으므로, 특히 교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 5) 청소년의 또래집단과의 관계와 역량지각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 집단의 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수용도, 행동·품행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 신체적 역량지각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해 비해 또래 집단과의 친밀과 청소년의 학업 및 운동 능력은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또래 집단의 지지가 역량지각이나 사회적 수용도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주리, 1994; 한중해, 1996)와 일치한다.

즉, 청소년은 또래와의 공동활동을 통해서, 가족을 넘어서는 보다 넓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며, 또래 집단의 규율이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에 또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동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은 소외감과 기존의 사회가치 학습 기회의 부족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 3.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및 역량지각의 차이

###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t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

〈표 3〉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남 학생		여 학생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60.70	10.06	63.26	10.58	-1.69
아버지	58.12	11.76	57.48	11.56	.38
형제자매	60.65	10.27	59.77	10.88	-.56
교사	54.36	9.80	49.85	10.28	3.02**
또래집단	67.02	10.26	69.77	10.90	-1.74

\*\* p < .01

이 여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 및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보다 애정적으로 지각한다는 한중혜(1996)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한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또래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현심, 2000)와는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은 아동과 달리 성인과의 관계에서 성별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높게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역량지각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역량 지각에 대한 t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운동 능력과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역량지각이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운동 능력 및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역량지각을 높게 하였다. 그에 비해 학업 능력, 신체, 행동·품행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이 결과는 운동 능력이 국가간 연구나 종단적 연구에서도 일생 지속되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진다는 연구 결과(이주리, 1994; Harter, 1999)와 일치한다. 즉 운동능력 영역을 남성의 영역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 의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운동능력에 대한 역량지각을 높게 하며, 실제로 스포츠나 체육교과에 남학생의 참여와 관심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남학생의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역량지

각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한중혜, 1996)결과와 불일치한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수용도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기존 연구와 달리, 중학생이었으므로 사회적 수용도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하겠다.

4.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및 역량 지각의 차이

1)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보다 어머니, 아버지, 교사를 보다 친밀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관계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청소년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권위있는 존재로부터 독립하려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역량지각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보다 학업능력, 운동능력, 신체적 역량지각,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역량 지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11-14세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에 변화가 없다는 연구(Nottelman, 1987)와 일부 불일치한다.

청소년은 중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연령 증가에

〈표 4〉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역량지각

역량지각	남학생		여학생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업능력	2.38	.57	2.36	.60	.19
사회적 수용도	2.84	.52	2.67	.58	2.26*
운동능력	2.85	.81	2.11	.82	6.53***
신체	2.30	.87	2.20	.90	.80
행동·품행	2.67	.55	2.56	.54	1.45
전반적 자아가치감	2.90	.58	2.80	.60	1.23

\* p < .05 \*\*\* p < .001

〈표 5〉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중1 (N = 109명)		중3 (N = 89명)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63.73	10.55	60.22	10.22	2.25*
아버지	60.97	11.73	54.64	10.92	3.72***
형제자매	61.53	10.27	58.44	11.02	1.89
교사	56.08	9.24	48.15	9.65	5.49***
또래집단	68.05	11.18	69.52	9.52	-.92

\* p &lt; .05 \*\*\* p &lt; .001

〈표 6〉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역량지각

역량지각	중1(N = 109명)		중3(N = 89명)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업능력	2.54	.60	2.17	.51	4.72***
사회적수용도	2.80	.59	2.70	.51	1.21
운동능력	2.64	.83	2.29	.95	2.73**
신체	2.47	.91	1.97	.75	4.16***
행동·품행	2.62	.56	2.61	.52	.24
전반적 자아가치감	2.94	.55	2.74	.62	2.34*

\* p &lt; .05 \*\* p &lt; .01 \*\*\* p &lt; .001

따라 신체 변화,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점차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므로, 역량지각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 지역인 순천 지역은 고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분위기가 입시 위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학교나 가정에서 개인의 학업 수행을 중요시하고 학생 간의 경쟁을 강화하게 되므로, 청소년이 학년 증가에 따라 역량지각 감소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에 건전한 자아형성이 중요하며, 자아 형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지각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

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역량 지각과 다양한 관계를 보였다. 즉,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는, 형제자매 관계가 지지적일수록 모든 역량을 더 높다고 지각하였다. 그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인 경우에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 사회적 수용도, 자아가치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를 지지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영역에서 역량지각이 높았으며, 또래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수용도, 신체,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영역의 역량지각이 높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역량지각 발달에서 가족 뿐만 아니라, 교사나 또래와 같은 가정 밖의 관계망이 긍정적 역량 지각 발달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생 상담이나 생활 지도가 각별히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부모,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관계나 또래와의 관계보다도,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의 역량지각의 전 영역에서 관련이 있다는 것은 흔히 간과되기 쉬운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고 보겠다.

둘째, 남학생은 교사를 친밀하게 여기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이지만,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여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교사는 여학생에게 보다 세심한 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청소년의 역량지각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 등을 통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순천시 중학생을 유의 표집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변수의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에 의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 참고문헌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Dweck, C. S. (1991). Self-theories and goal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In R. Dienstbie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38, pp.199-23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Feiring, C. & Taska, L.S. (1996). Family self-concept: Ideas on its meaning. In B.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 (pp. 317-373). NY: Wiley.  
 Gavin, D. A. W. & Herry, Y. (1996). The French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core validity and reliabil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 678-700.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_\_\_\_\_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Y: The Guilford press.  
 Higgins, E. T. (1991). Development of self-regulatory and self-evaluative processes: Costs, benefits, and tradeoffs. In M. R Gunnar & L.A Sroufe (Eds.), *Self processes an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Development* (Vol. 23, pp. 125-166). NJ: Erlbaum.  
 James, W. (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_\_\_\_\_ (1892). *Psychology: The briefer course*. NY: Henry Holt.  
 MacDonald, K. (1987). parent-child physical play with rejected, neglected and popular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05-711.  
 Maeda, K. (1997).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administered to a Japanese sample*. Unpublished data, Ibaraki Prefectural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Ibaraki, Japan.  
 Marsh, H. W. (1990).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concept: The Marsh/Shavelson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623-636.  
 Nottelmann, E. D. (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41-450.
- Rhee, U. (1993).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Korean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5, 57-66.
- Ruble, D. N. & Frey, K. S. (1991). Changing patterns of comparative behavior as skills are acquired: A functional model of self-evaluation. In J. Suls & T. A. Wills (Eds.), *Social comparison :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 70-112). NJ: Erlbaum.